

주간 규제 정보

Vol. 336

2021. 03. 01 ~ 2021. 03. 07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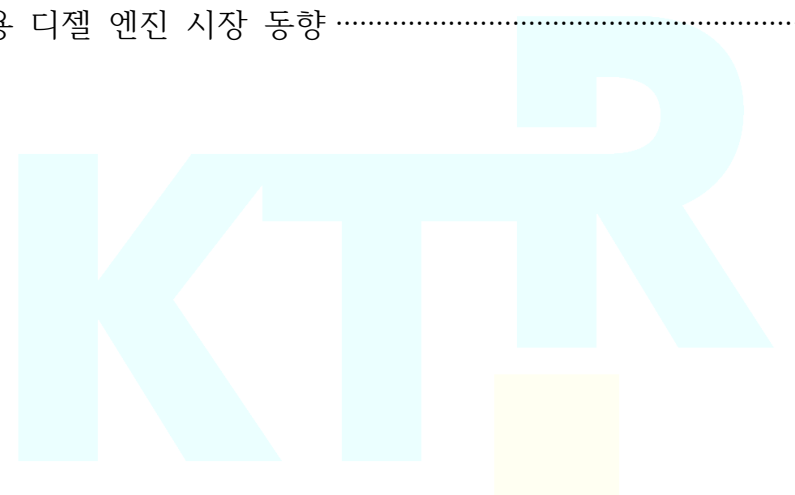
- 1.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3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 2.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
- 3. 일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32개 변이원성 물질 공표 5
- 4. 유럽화학물질청,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2개 화학물질 후보물질 목록에 추가 6
- 5. 스웨덴 비정부기구 ChemSec, SIN 목록에 6개 물질 추가 7
- 6. 섬유제품 내 노닐 페놀 에톡실레이트에 대한 EU 제한 적용 시작 8
- 7. 일본, 올해 10월부터 PFOA 및 그 염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 8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 8.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산업 현황: 얼굴 기초 제품(스킨케어)을 중심으로 9
- 9. 시장기회, 멕시코 중고의료기기 시장 20
- 10. 그리스 선박용 디젤 엔진 시장 동향 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 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하였다.

-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 (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의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 ① 인도는 냉장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 톨루엔, 무수프탈산, 테레프탈산, 탄산칼륨
- ②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였다.
- ③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 ④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 한국 및 EU: 기준치의 +10%이하, 칠레: (에너지) ±11%, (물) ±4% 이내
- ⑤ 짐바브웨는 우리가 요청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를 모두 수용하였다.
- ⑥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1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상기 11개 개선 규제 외에 해결되지 않은 8개국의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하여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을 실시 해,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2.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년 2월 24일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의 이유는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 간 괴리를 해소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 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도 안 신설 및 도안 내부 표시문자, 표시 재질 변경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기존 '페트'표시를 '투명페트'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

[별표] 분리배출 표시도안(제4조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도포·첩합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도안 추가



※ '도포·첩합등'이란법제9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재활용어려움”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단, 영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철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포장재는 제외한다) 중 몸체(플라스틱·종이등)에 탄소재·재질(금속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 몸체와 다른 소재·재질(금속 등)로서 분리가 가능한 것은 제외합니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개정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투명페트	노랑색	-, 바이오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HDPE, 바이오 LDPE, 바이오PP, 바이오PS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빨강색	-

비고

- ※ 표시재질구분의 “바이오”, “바이오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는「환경표지대상 제품및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각각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한 것에 한합니다.
-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 ※ 표의 “-”는 공란을 의미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1)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전자우편 : whisika@korea.kr,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2-0001400>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3. 일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32개 변이원성 물질 공표

2020년 12월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력한 변이원성 물질로 여겨지는 32개 물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중 27개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L)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에 신고된 신규 물질(이하 신고 물질)이며 나머지 5개 물질은 동 법에 기존 물질로 등록된 물질입니다.

이 물질 외에 강력한 변이원성이 확인된 물질은 현재까지 1,247개 물질(신규물질 1,010개, 기존 물질 237개)이 있으며 해당 물질들은 ‘변이원성 화학물질에 의한 상해 방지를 위한 지침*’ 대상입니다.

*変異原性が認められた化学物質による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の 指針

따라서, 해당 화학물질을 생산 및 취급하는 사업장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작업자 교육, 환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나 라벨에 ‘미생물에 대한 강력한 변이원성’ 표시 등, 본 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자 관련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권장보존기간 : 30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hourei/doc/tsuchi/T210121K0030.pdf> <https://www.mhlw.go.jp/hourei/doc/tsuchi/T210121K0020.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4. 유럽화학물질청,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2개 화학물질 후보물질 목록에 추가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1년 1월 19일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아래 2개 물질을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s**)후보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European Chemicals Agency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해당 물질은 잉크 또는 토너 제품에 사용되며, 플라스틱 및 고무 타이어 생산 시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생식독성을 유발하여 성 기능과 생식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손의 발달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후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물질명	EC 번호	CAS 번호	사유	용도 예시
1	Bis(2-(2-methoxyethoxy)ethyl) ether	205-594-7	143-24-8	생식독성 유발	용매/추출제
2	*Diocetyl tin dilaurate, stannane 및 dioctyl-, bis(coco acyloxy) 유도체, 및 기타 stannane, dioctyl-, bis(fatty acyloxy) 의 모든 유도체. (여기서 C12는 지방 아실옥시 모이어티의 함량비율이 높은 화학물질 (우세 화학물질) 의 탄소수를 의미함)	-	-	생식독성 유발	플라스틱 및 고무 타이어 첨가제

※ REACH 법령에 따라 물질 그룹으로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3개 그룹 중 1개 그룹(Diocetyl tin dilaurate)의 경우 등록됨

이로써 SVHCs 후보 목록은 환경 및 인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211개 물질이 되었습니다.

SHVCs 후보 목록 내 있는 물질의 경우, EU REACH 법률 상 허가 물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허가 물질로 선정될 시 업체는 해당 물질의 취급을 위해 ECH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보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이 중량 기준 0.1% 이상 함유된 완제품을 EU 역내 유통하는 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물질이 후보 목록에 새로이 포함된 경우, 포함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CH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후보 목록 물질 공급자는 화학제품 구매자에게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Safety Data Sheet

또한, 2021년 1월 5일부터 고위험성 우려 물질을 중량 기준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유통하는 자는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에 따라 반드시 ECHA의 SCIP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ha.europa.eu/-/candidate-list-updated-with-two-chemicals-that-are-toxic-for-reproductio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5. 스웨덴 비정부기구 ChemSec, SIN 목록에 6개 물질 추가

2021년 1월 22일, 스웨덴 비정부기구 ChemSec은 EU CLP*에 따른 분류 결정에 따라 SIN**목록에 아래 6개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 Substitute It Now

물질명	CAS 번호	용도
m-bis(2,3-epoxypropoxy)benzene; resorcinol diglycidyl ether	101-90-6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및 코팅제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bis(2-(2-methoxyethoxy)ethyl) ether	143-24-8	잉크 및 토너
dioctyltin dilaurate	3648-18-8 91648-39-4	접착제, 실란트, 코팅 및 페인트를 포함한 여러 응용 분야
bis(α,α-dimethylbenzyl) peroxide	80-43-3	고분자 제조 시 첨가제로 사용
stannane, dioctyl-, bis(coco acyloxy) 유도체	91648-39-4	고무 및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 생산 시 안정제 및 촉매를 포함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
butanone oxime; ethyl methyl ketoxime; ethyl methyl ketone oxime	96-29-7	코팅 및 페인트

SIN 목록은 다양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EU REACH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s*) 기준에 충족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협이 되어 가능한 한 빨리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물질 목록을 의미합니다.

* substances of high concern

한편, ChemSec은 유럽위원회가 지난 2013년 생식독성(구분 1B)을 일으킨다고 잘못 보고했던 아래 물질을 SIN 목록에서 최초로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물질은 생식독성 구분 2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 4,8-bis(mercaptomethyl)-3,6,9-trithia-1,11-undecanedithiol (CAS No. 170016-25-8)

ChemSec은 EU CLP 규정에 따라 생식독성 구분 1A 또는 1B 및 발암성 물질, 돌연변이원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SIN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09369/chemsec-adds-six-substances-to-sin-list>

- 방수 및 내유성 의류
- 발수 및 발유성 바닥재
- 바닥용 왁스
- 인화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른 Class I 지정 화학 물질은 일본이 잔류성, 고도의 생물 축적성 또는 인체에 장기적인 독성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화학 물질입니다.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09342/japan-to-ban-pfoa-and-its-salts-from-october>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G/TBTN21/JPN685.pdf&Open=Tru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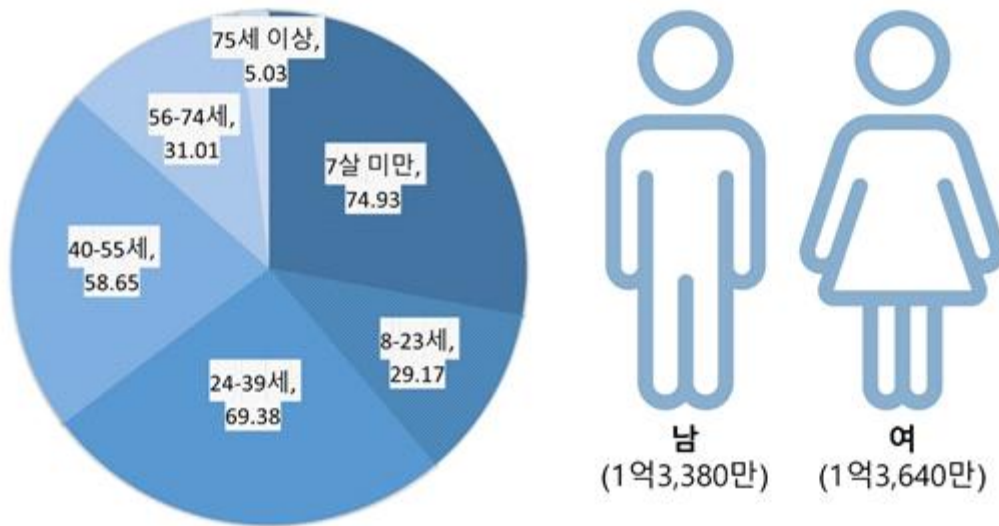
8.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산업 현황: 얼굴 기초 제품(스킨케어)을 중심으로

- 인도네시아 얼굴 스킨케어 화장품 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6.5% 성장전망 -
-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고급스런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확보가 관건이며, 26년까지 할랄인증을 받아야 -

인도네시아 얼굴 스킨케어 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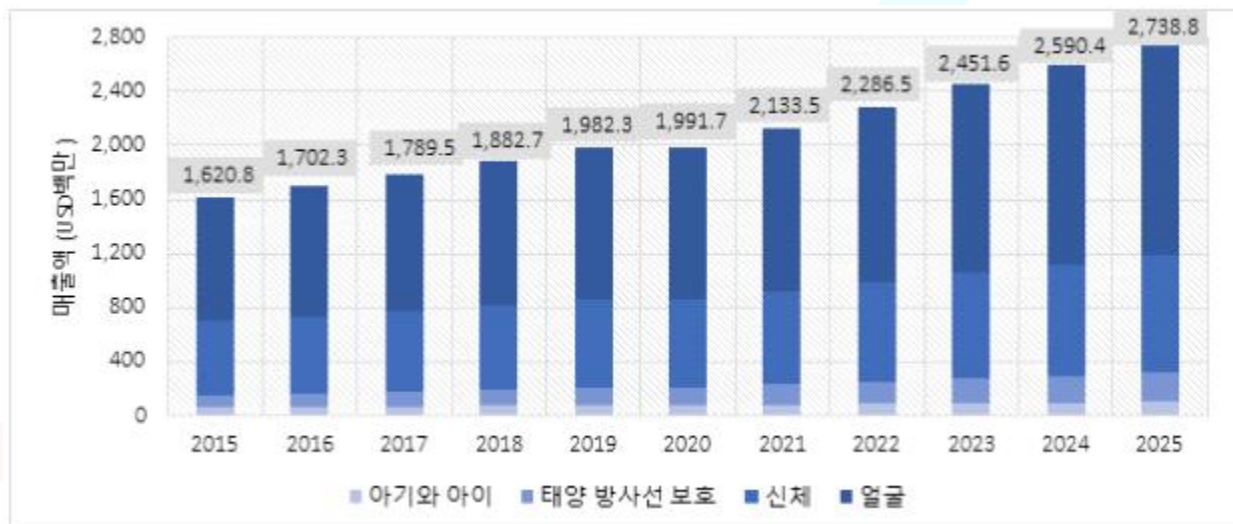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020만 명의 세계 4위 인구대국이며, 생산가능연령(15~64세)이 전체 인구의 70.7%에 달하다. 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5세 이하의 청소년층 구성비는 26.6%로 주요 5개국 중 가장 낮은 일본(12.2%), 두번째로 낮은 한국(12.9%) 등에 비해 2배이상 높아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젊은 국가이며,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인도에 이은 4위의 높은 출생률을 자랑하는 화장품 산업의 중요한 잠재 시장이자 미래 시장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등 개인 미디어의 활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면서 선진국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광고 등의 노출에 따른 피부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킨케어는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어하는 젊은 연령층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가 되었다. 여성 소비자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얼굴 스킨케어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남성 전용 브랜드들도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 및 성별별 인도네시아 인구
(단위:좌): 백만명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2020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일반적으로 스킨케어는 신체 부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얼굴, 바디, 두피 등으로 나뉜다. 본 기사는 얼굴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얼굴 스킨케어 분야의 2019년도에 매출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얼굴 스킨케어가 최고 관심사였다. 2020년 얼굴 스킨케어 제품의 총 매출액은 USD11.3억으로 2019년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CAGR이 6.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여성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를 선호하고, 성분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천연, 유기농, 피부관리형 화장품 브랜드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들은 이미 신뢰받는 유명 브랜드 구매를 선호한다.

인도네시아 스킨케어 시장 매출
(단위: USD)

주: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한 예측치. 크림, 로션, 선크림, 아이크림, 핸드크림, 유아 및 아동 피부 관리 등은 포함.

단 색조 화장품, 피부 마사지 샵용 전문 제품 및 서비스, 피부 치료 제품(즉, 여드름 치료)은 제외

자료: Statist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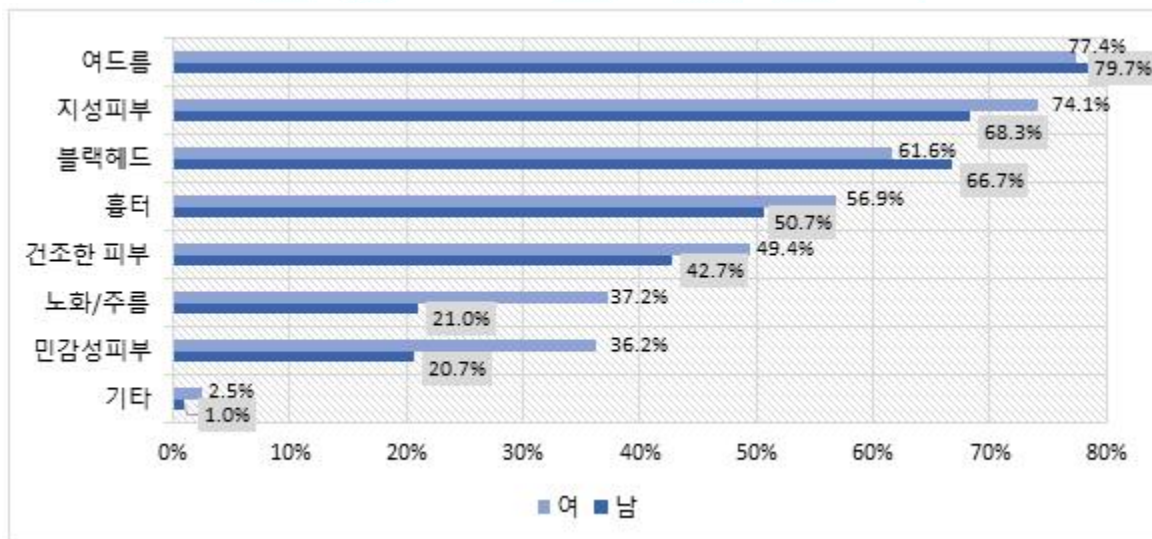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은 얼굴 피부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대부분 "stay at

home"로 바뀌면 집에서 얼굴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또한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습도가 높은 열대성 기후를 가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쉽게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okopedia의 뷰티·헬스·개인관리 카테고리 담당 수석대표인 Jessica Gunawan에 따르면 2020년 4분기에 Tokopedia의 뷰티 카테고리에서 거래가 2019년 4분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로레알 인도네시아 (L'Oréal Indonesia)는 얼굴 마스크 팩 및 눈 피부 관리(eye care)로 아이크림 등을 포함하며, 색조제외)와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beauty treatment)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피부타입과 얼굴 피부관리 선택 시 고려사항

인도네시아인은 다른 아시아인과 피부타입이 비슷하다. 유럽인보다 지방질 많고, 각질층이 얇으며, 탈수되기 쉽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진피층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유럽인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주름이 생긴다. 유럽인과는 다르고 다른 동아시아인들과 유사한 피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습도의 열대 기후로 인해 인도네시아인이 느끼는 피부 문제는 다른 동아시아인들에 비해 상당히 다르다. Jakpat의 스킨케어 제품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젊은 인도네시아인(16~35세)의 대다수는 블랙헤드나 여드름 문제가 있는 지성 피부 타입이다. 피부과 의사 Aida 씨는 인도네시아 얼굴 피부 문제는 대부분 여드름, 블랙헤드, 큰 모공, 그리고 주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많은 인도네시아인이 피부과를 방문해 얼굴 피부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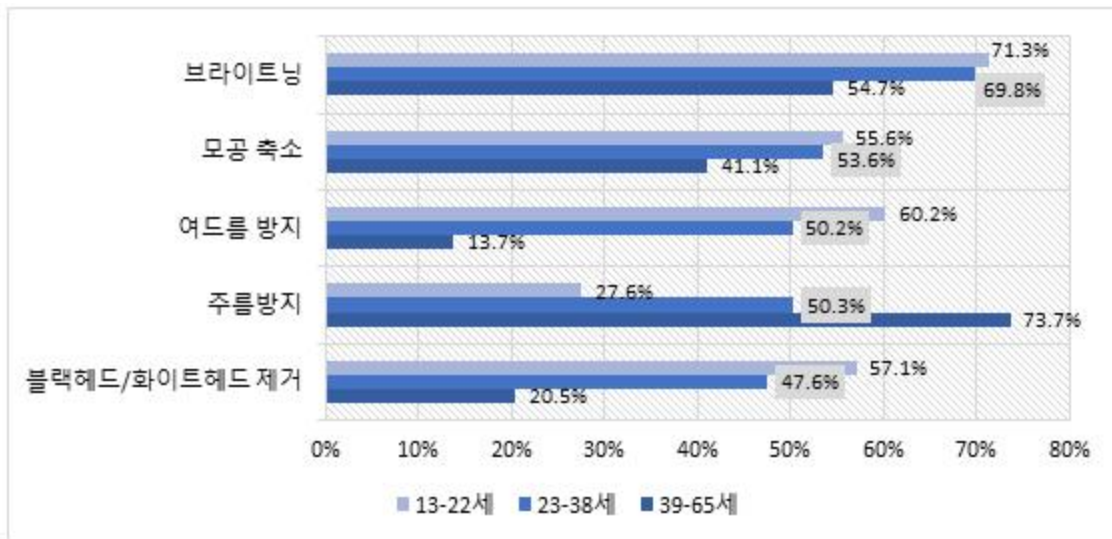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인 얼굴 피부 문제



자료: Jakpat 조사 보고서 2018,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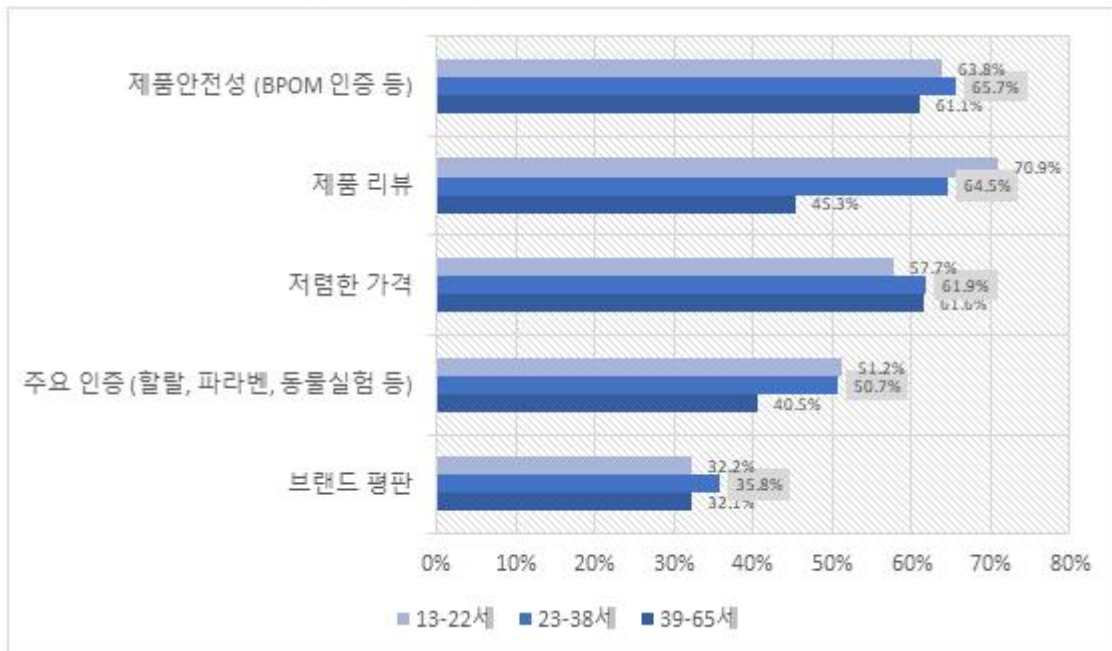
ZAP Beauty Index 202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의 연령대별 필요한 얼굴 피부 관리 제품이 다르다. 만 13~22세 여성은 여드름 방지와 브라이팅 스킨케어를 가장 선호한다. 만 23~28세 여성은 피부 속 모공을 밝게 하고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얼굴 스킨케어 제품을 선호한다. 한편, 39~65세 사이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피부를 밝게 할 수 있는 노화방지용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제품 효능 외에도 얼굴 피부 관리 제품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인 식약청(BPOM)의 공식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인증에 대해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사용하는데 안전하다고 믿는다..

인도네시아 얼굴 피부 관리 제품 선호도



자료: ZAP Beauty Index 2020년 8월

인도네시아인의 얼굴 피부관리 용 상품 구매시 주 고려사항



자료: ZAP Beauty Index (2020. 8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스킨케어 제품의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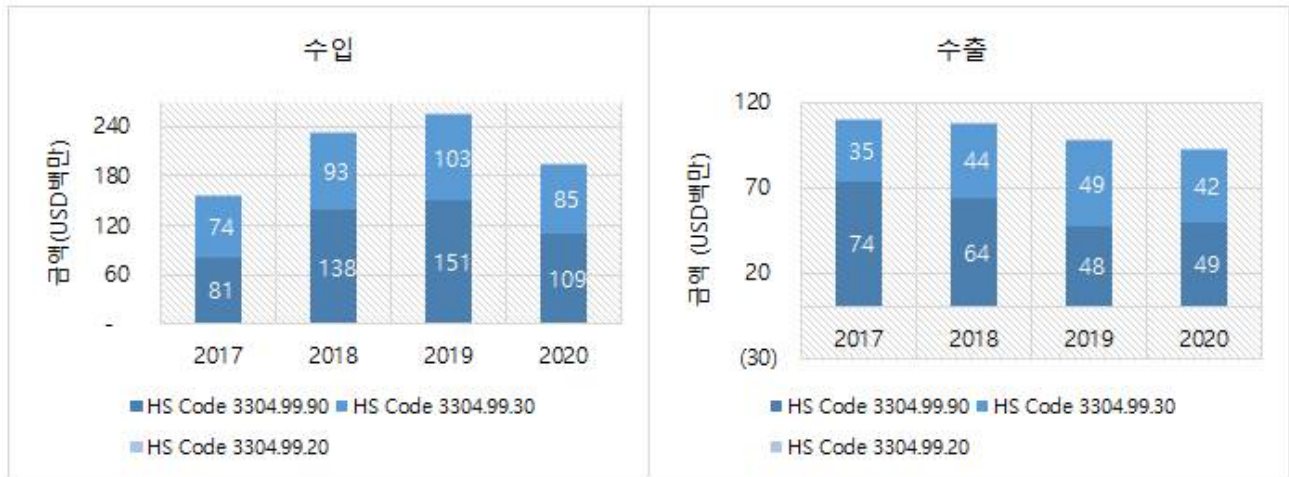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얼굴 피부관리제품(스킨케어 제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얼굴 스킨케어 제품만을 분리한 수출입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수출입 동향은 HS Code 3304.99에 따른 제품을 포함한다. 스킨케어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입액은 2017~2019년까지 매년 증가해왔다. 반면 인도네시아산 스킨케어의 수출액은 2017~2019년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화장품 전체 수출입에 영향을 미쳤는데,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했다.

한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최대 스킨케어 수출국이었다. 이 기간의 총 수입액은 USD1.08억이었다. 그 뒤를 프랑스 (USD1.01억)와 미국 (0.96억)이 이었다. 한국의 스킨케어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인의 피부타입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디어 등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의 건강한 피부로 인해 한국의 스킨케어 화장품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잘 브랜딩(Branding)되어 있다. 여드름 방지 제품

(HS 코드 3304.99.20)에 특화된 말레이시아 산의 수입액은 2020년에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화장품의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는 싱가포르가 2017~2020년 전체 수출액의 USD1.12억으로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다. 그 다음으로 태국(USD1.16억)과 말레이시아(USD0.28억)가 뒤를 이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기후, 사회문화, 구매력의 유사성과 가까운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 이 지역들에 인도네시아산 스킨케어 제품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스킨케어 수출입 동향



자료: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스킨케어 수입액
(단위: USD)

제품 분류 (HS code)	동업자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드름 예방 (3304.99.20)	말레이시아	160	2,683	2,210	712,980
	한국	83,683	107,576	311,129	186,703
	미국	95,270	141,720	215,051	117,441
	일본	4,295	17,017	14,010	7,493
	영국	11,650	6,276	8,102	5,070
얼굴 또는 피부 크림 & 로션 (3304.99.30)	한국	4,523,329	12,036,607	13,927,890	13,888,782
	태국	8,134,774	11,354,040	12,706,239	10,512,885
	말레이시아	2,849,055	6,665,687	8,997,252	10,407,490
	미국	10,892,659	10,199,261	11,024,573	9,456,902
	중국	2,368,656	5,966,546	9,361,361	6,373,728
기타 (3304.99.90)	한국	3,878,120	12,841,616	20,076,064	26,338,396
	싱가포르	8,292,766	1,425,105	28,593,132	12,893,344
	미국	11,698,998	17,355,674	14,475,669	10,750,505
	France	12,235,583	28,302,018	20,886,424	10,559,415
	일본	13,851,974	14,378,176	15,404,720	9,582,907

주*: 2020년의 수입액 기준 정렬

자료: Global Trade Atlas

수입 관세 및 제한

인도네시아로 스킨케어 화장품(HS 코드 3304.99)을 수입하려면 인도네시아 국립 의약품 및 식품 통제청(BPOM - Indonesia's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수입제품은 반드시 BPOM에 등록해야 한다는 BPOM의 규정 (30호2017년) 따른 것이다.

스킨케어 제품의 수입관세 및 제한

제품 설명 (HS 코드)	수입 제한	수입 관세*		VAT
		MFN	AKFTA	
여드름 예방 (3304.99.20)	수입 승인 인증서**	15%	0%	10%
얼굴 또는 피부 크림 & 로션 (3304.99.30)	수입 승인 인증서	15%	0%	10%
기타 (3304.99.90)	수입 승인 인증서	15%	0%	10%

주*: MFN(수입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비차별관세), AKFTA(아세안-한 자유무역협정)

주** : BPOM 규정 (30호2017년)

자료: Indonesia National Trade Repository 웹사이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할랄 스킨케어의 부상

세계적에서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약 2억 2,500만 명의 신자가 있으며, 이슬람의 율법에 따른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큰 관심사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알코올을 함유하거나, 동물 실험을 하거나, 동물 특히 돼지고기의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할랄 인증은 좋은 성분만 사용한다는 믿기 때문에 안전성과 품질 보증의 표시로도 인식되고 있어 매출 확대에도 유리하다.

세계적으로도 할랄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공장과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스킨케어 브랜드가 많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선두주자는 PT Paragon Technology and Innovation (PTI)과 L'Oréal Indonesia로 현지 시장과 동남아 지역을 공급하는 공장에 대해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인 코스메카(Cosmecca)도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중동과 동남아시아로 제품을 수출했다.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국내 스킨케어,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 인도네시아(Cosmax Indonesia)도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할랄 화장품 시장 공약을 희망하는 글로벌 파트너와도 협력한다. State of the Global Economy Report 20/21에 따르면 Cosmax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대학인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ITB)와 인도네시아산 원료와 한국 화장품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MOU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 화장품 브랜드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또는 해외 공인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할랄 규제 (규정 31호 2019년)를 새로 발표했다. 할랄의 인증은 인도네시아 올레마 위원회 (무이 MUI: Majelis Ulama Indonesia - Indonesian Ulema Counci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율법학자 평의회, 인도네시아 올레마 위원회, 인도네시아 무슬림 평의회 등 다양한 호칭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의 산하단체인 LPPOM MUI 담당한다. LPPOM MUI (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기관이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LPPOM MUI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되지만, 인도네시아 이외의 외국 지역에서는 현지

에 있는 HCB (Halal Certificate Bodies)라는 LLPOM MUI의 인증을 받을 현지 기관에서 인증을 받게된다. 다만 이때 단서조항이 있는 HCB는 제외된다. 2020년 11월 현재 26개국 45곳에 LLPOM MUI가 승인한 HCB가 있다. 이 HCB 목록은 <http://www.halalmu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구미선진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3개소), 대만(1개소)이 유치해 있으나 한국은 현재까지 LLPOM MUI가 승인한 할랄인증기관 HCB가 이 없어 수출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관련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대해야 한다. 아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이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절차

실행자	사업가	BPJPH	BPJPH	LPH	BPJPH	MUI	BPJPH
과정	할랄인증신청 서제출	응용 프로그램 문서 검토	LPH 지정	제품의 할랄성 검사 및/또는 테스트	검사 결과 문서 및/또는 LPH 테스트 승인 및 확인	제품의 할랄성 규정	할랄 인증서 게시
기간 (근무일)		10	5	40 (인도네시아) 60 (해외)	5	30	5

주: BPJPH (할랄제품보증기구/Badan Penanggulangan jaminan Produk Halal),

LPH (할랄검진기관/ Lembaga Pemeriksa Halal), MUI (인도네시아 올레마 위원회/Majelis Ulama Indonesia)

자료: <https://cosmetic.chemlinked.com/>

제품 트렌드

코로나19 는 사람들이 집에 더 많이 머물게 하여 얼굴 피부를 관리할 기회를 갖게 했는데, 마스크 팩과 같은 피부 관리를 위한 제품들이 수요가 많았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회사의 개발담당 전문가인 WH씨는 2021년에는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등 얼굴 피부 관리 및 보호용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스킨케어 브랜드의 제품 개발 혁신이 인도네시아의 얼굴 스킨케어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에는 Avoskin, Lacoco, Somethinc 등 다양한 현지 인도네시아 화장품 브랜드가 얼굴 피부 관리 부문에서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유력 화장품 소비자 리뷰 사이트의 하나인 Female Daily 공동창업자 Affi Assega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피부 활성 성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단일 활성 성분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도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가지 얼굴 피부 관리 동향은 1) 피부 활성 제품 및 성분명 마케팅 2) 단말기 청광색 방지, 3) 생화 활용 으로 예상된다.

주름 개선 등 피부 활성 제품과 성분명 마케팅 강화

피부 개선(안티 에이징 등) 제품은 얼굴 피부 층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분이 함유된 스킨케어 제품이다. 2020년에 유행한 주요 스킨케어 성분으로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나아신아미드(니코틴아미드), 레티놀, 펩타이드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화장품회사 개발자는 2021년에는 레티놀 대체품으로서 바쿠치올 함유량이 있는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캐나다 원산인 The Ordinary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원산인 Somethinc, Avoskin 등 여러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활성 물질의 핵심 성분을 직접 거론하면서 제품을 출시했고, 소비자들이 스킨케어에 있는 활성 물질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성분 마케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0년에 유행했던 니아신아미드 포함 제품의 예



자료: reviews.femaledaily.com

성분명 마케팅의 예시

All Product, Anti Aging, Brightening, Moisturizing	Anti Aging, Miraculous, Retinol Series	All Product, Anti Aging, Brightening	All Product, Anti Aging, Moisturizing
Your Skin Bae Ultimate Hyaluron Marine Collagen 5% + Hyacross 2% + Galactomyces	Miraculous Retinol Sheet Mask	Your Skin Bae Alpha Arbutin 3% + Grapeseed	Your Skin Bae Marine Collagen 10% + Ginseng Root
☆☆☆☆☆	☆☆☆☆☆	☆☆☆☆☆	☆☆☆☆☆
Rp 149.000	Rp 35.000	Rp 139.000	Rp 139.000

자료: avoskinbeauty.com

청광 방사선(blue-light radiation)으로부터 피부 보호 제품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work at home) 기간에 소비자들이 컴퓨터나 TV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때 화면에서 방출되는 청색광 방사선에 의해 과다 색소침착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청색광 방사제 성분이 함유된 얼굴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일례로 Wardah Indonesia사는 2020년에 니아신아미드 성분이 함유된 얼굴용 데이크림(day cream)을 출시해 청색광 방사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생화가 함유된 스킨케어

꽃은 피부 미용에 좋다하다는 인식이 있어 오랫동안 스킨케어 제품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장미, 자스민, 라벤더, 칼렌둘라, 히비스커스, 카모마일과 같은 꽃들로 부터 에센스 오일을 채취하거나, 수액 채취, 방향물 포집 등으로 활용한다. 실제 꽃잎이 함유된 얼굴용 스킨 토너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1년에도 중요한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꽃잎은 화장품의 주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포장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다. 2020년 Wardah Indonesia사는 아발란스 로즈(Alavanche rose)가 포함된 히드라 로즈 시리즈(Hydra Roses Series)를 출시했으며, Aubree사도 식물칼렌둘라 토너를 출시하여 2020년 Tokopedia의 뷰티 어워드에서 최고의 토너 후보에 올랐다.

2020년에 유행하던 꽃잎 함유 인도네시아 제품



Wardah – Hydra Rose Series



The Aubree – Botanical Calendula Toner

자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wardahbeauty와 @aubree.skin

유통 채널 및 마케팅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유통과 마케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 포장을 보고 제품 테스터까지 해볼 수 있게 하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많은 오프라인 상점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미용실에서 피부 관련 처치를 받지 않도록 많은 제한하였다. 그 여파로 인해 온라인 판매의 증가했으며, 온라인 채널은 코로나19 전염병 동안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미디어는 스킨케어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매우 영향력 있는 마케팅 채널이 되었다. 제품 리뷰와 홍보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의 뷰티 인플루언서는 스킨케어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의 역할도 크지만, 다수의 인플루언서의 숫자도 영향을 미친다. 스킨케어 제품 리뷰의 프로모션 채널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이며, 틱톡은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는 별도로 인도네시아에서 스킨케어 사용 트렌드를 형성하는 데도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스킨케어 제조·판매자는 배송비 할인 혜택을 받아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홈페이지에 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현재 Shopee 등 몇몇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는 스킨케어를 포함한 남성용 제품을 판매하는 'Shopee Man Sale'이라는 하위 사이트까지 개설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Beauty Journal by Sociolla과 Female Daily 등 소비자 리뷰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채널을 통해 잠재 구매자들은 이러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제품 리뷰를 볼 수 있다. 이 채널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지불되었을지도 모르는 뷰티 인플루언서와 블로거들의 리뷰에 비해 구매자들의 더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스킨케어 마케팅 및 유통 채널

오프라인	공식 매장 - 매장 혹은 브랜드 샵 (예: Wardah, The Body Shop, 이니스프리 등)
	소매유통 - 편의점: Alfamart, Indomaret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 Hero, Carrefour, Transmart, Lotte Mart 등 - 백화점 : METRO, SOGO 등 - 건강 및 미용 전문점: Sociolla, Watson, Guardian, Century, Shepora 등
온라인	공식 웹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또는 회사의 공식 웹 사이트(예: Wardah 공식 웹사이트, The Body Shop 공식 웹사이트, 이니스프리 웹사이트 등)
	시장 및 뷰티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장: Tokopedia, Shopee, BliBli, Bukalapak, Lazada 등 - 뷰티 전자상거래: Sociolla, Beautyhaul
	소셜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또는 회사의 소셜 미디어 - 소비자 리뷰 플랫폼: Beauty Journal by Socioll, Female Daily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얼굴 스킨케어 관련 기업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얼굴 스킨케어 업체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내 797개 대형·중소형 화장품 업체가 있다. 2018년 760개 업체에 비해 37개가 늘어난 수치다. 797개 기업 중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 (Badan Kordinasi Penanaman Modal - BKPM)에 등록된 기업 294개는 해외에서 투자한 기업으로 전체 화장품 기업의 37%가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인 셈이다. 아래는 2019년 시장점유율 기준 인도네시아 10대 스킨케어 기업 리스트입니다.

인도네시아 10대 스킨케어 기업

순위	회사명	주요 브랜드 명	2019년 시장점유율 (%)	브랜드 원산국
1	PT Unilever Indonesia Tbk	Pond's, Fair & Lovely, Citra, Vaseline, Nameera	24.9	영국
2	PT Procter & Gamble Home Products Indonesia	Olay, SK-II	7.9	미국
3	PT L'Oréal Indonesia	Garnier, Lancôme, Biotherm, L'Oréal	6.9	프랑스
4	PT Paragon Technology and Innovation	Wardah, Emina, Make Over, Kahf	5.7	인도네시아
5	PT Beiersdorf Indonesia	Nivea	3.0	독일
6	PT Kao Indonesia	Bioré	2.4	일본
7	PT Vitapharm	Viva	2.1	인도네시아
8	PT Monica Hijau Lestari	The Body Shop	1.9	인도네시아
9	Martha Tilaar Group	Biokos, Sariayu	1.4	인도네시아
10	PT Mandom Indonesia Tbk	Pixy	1.3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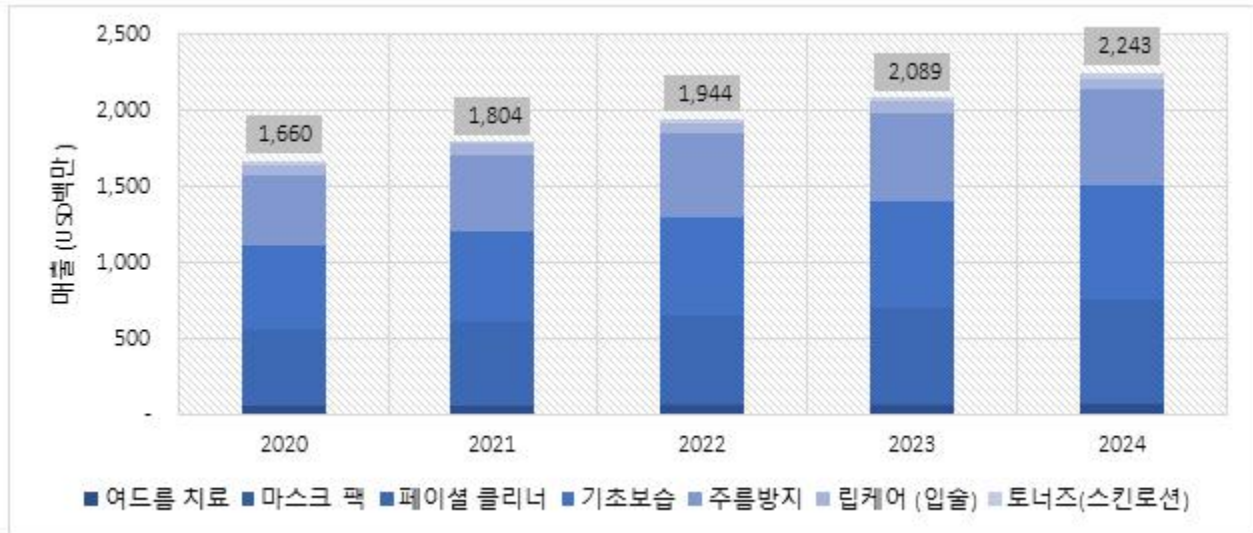
자료: 유로모니터(202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기회와 도전

70% 이상이 생산연령층인데다가 젊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인구는 스킨케어 산업에 커다란 시장 잠재력을 창출한다. 유로모니터는 인도네시아의 얼굴 스킨케어 매출이 CAGR(2021~2024년)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는 얼굴 피부관리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자주 세안을 하고, 세안 후에 보습제와 트리트먼트를 포함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 이어지기도 한다. 감염병 방지용 안면 마스크는 이 유행병이 완화된 후에도 새로운 습관의 하나로 계속 착용될 가능성이 있다. 마스크 착용은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피부관리에 대한 또 다른 관심도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카테고리별 스킨케어 매출 예측



자료: 유로모니터, 2020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얼굴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에는 남성용 얼굴 피부관리 브랜드가 몇 개 되지 않으며, 대부분 다국적 기업 제품이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남성들은 세안제만 사용했다. 향후 남성용 시장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언

1. 인도네시아의 기후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라.

인도네시아의 열대성 기후와 높은 습도,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일일 기도활동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SPF 보호와 방수 기능이 포함된 얼굴 스킨케어 제품과 메이크업을 선호한다. 이슬람교도들은 오후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세수를 하고 자외선 차단제나 SPF가 함유된 화장을 다시 바른다.

2. 할랄인증 전략을 세워라. 이제부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스킨케어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수입 화장품/스킨케어 제품의 할랄 인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한국내에는 LPPOM MUI (Indonesia Ulema Council)가 승인한 할랄인증기관 (Halal Certification Bodies - HCB)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입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2026년 이전에 할랄인증 전략을 세워야 한다.

3.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이해하라.

인도네시아인에게 화장품의 브랜드(Brand)는 구매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일부이다. 특히 중년 소비자들은 한 브랜드에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 한꺼번에 하나의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 한 세트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새로운 스킨케어 브랜드들에게 처음에는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 : Euromonitor, Statista, Global Trade Atla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Trade Repository Website, <https://www.antaraneews.com>,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21, ZAP Beauty Index 2020, Direct interview with WHP (a product specialist of Indonesia's beauty company), Skincare product: The Trend & Usage Experience (Jakpat Survey Report 2018), Direct interview with dr. Aida (dermatologist), <https://www.cosmeticsdesign-asia.com>, <http://www.halalmui.org>, <https://cosmetic.chemlinked.com>, OECD 홈페이지. -- 끝--

출처 (KOTRA해의시장뉴스)

9. 시장기회, 멕시코 중고의료기기 시장

- 식약청 등록없이 수입 가능해 시간과 비용 절감 -
- 특히, 영상진단기기 분야의 수출 기회로 볼 수 있어 -

의료기기 시장 전체 현황

멕시코 의료기기 부문은 2019년 시장규모 54억 1,260만 달러로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에는 다국적 기업(Abbot, Medtronic, GE Healthcare, Baxter, Siemens, J&J 등)의 멕시코 진출에 힘입어 35.1% 성장을 이루었다.

2020년에는 일부 의료기기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대면 진료에 불가능함으로써 시장 규모가 쪼그라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상황 등 점진적인 회복세와 기존의 시장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4년 동안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멕시코 의료기기 수출입은 국내의 높은 수요 뿐만 아니라 인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중 미국으로의 수출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 규모 (2014-2024년; Million USD)



자료: Fitch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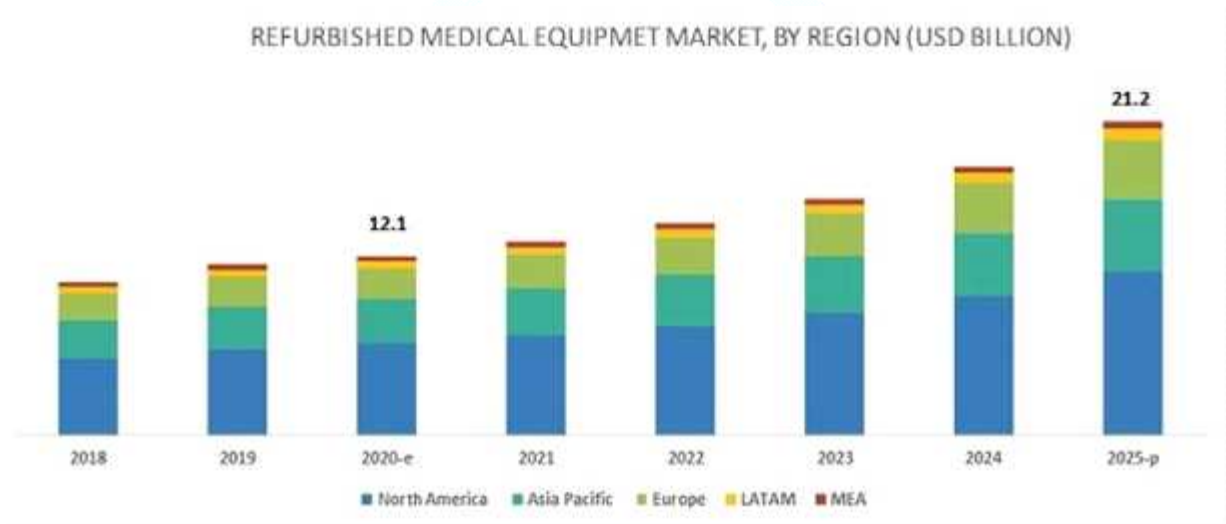
중고 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분석

중남미는 상대적으로 북미, 아시아, 유럽에 비해 중고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멕시코와 브라질이 주도하는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에서 중고 의료기기 시장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Markets and Markets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중고의료기기 시장의 비중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세이며 그 중 멕시코는 향후 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만성 질환(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등)

치료를 위한 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며 그 중 일부인 중고 의료기기 시장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륙별 중고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2014-2024년; Billion USD)



자료: Markets and Markets

멕시코의 대형 공립 및 사립 병원은 최신식 전문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반면, 중소 규모의 민간 클리닉이나 병원은 제한된 예산으로 중고 의료기기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형 사립 병원의 경우 예산에 따라 중고, 리퍼브 등의 수입 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다.

현지 의료기기 총판 기업 EMP사의 책임자인 알베르토 바렐라(Alberto Barella)와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 남동부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료 서비스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중고 기기 및 리퍼브 제품을 구매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유의할 점은 멕시코 국공립 병원의 경우 중고 혹은 리퍼브 기기를 구매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한다.

중고 의료 기기의 수입 절차

중고의료기기 수입에 있어 멕시코가 가진 큰 장점은 식약청의 별도 위생등록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 기기와 비교하여 수입 과정이 매우 단순하다. 식약청 위생등록없이 중고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허가서 COFEPRIS-01-015-F)만 갖추면 된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제반 서류 외에 해당 허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추가 인증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위생등록이 불요한 의료기기 수입허가

항목	세부내용
허가명	위생등록 불요한 의료기기 수입에 관한 허가증 Permiso Sanitario de Importación de Dispositivos Médicos que No Sean o Contengan Estupefacientes o Psicotrópicos, Sin Registro o en Fase de Experimentación
시간	약 10일 소요(근무일 기준)
해당 법령	보건 기기 조달 관련법 200항

	보건법 8조 295, 375항
식약청 조항	COFEPRIS-01-015-F
규제	중고의료기기 수입, 위생등록 불요

자료: COFEPRIS

중고의료기기 수입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일원화된 멕시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1) 허가, 인증 및 방문 양식
- 2) 소요 비용 지불 영수증
- 3) 제품 기능 안내서
- 4) 중고기기임을 증명하는 공증 서류
- 5) 공증인 또는 이에 준하는 해외 기관이 인정하는 사용 적합성 및 기능 테스트, 효력 보증서

* 수입기기가 X-ray 기기일 경우에는 NOM-229-SSA-2002인증을 준수

웹사이트 <https://www.ventanillaunica.gob.mx/vucem/index.html>

- 1) 허가, 인증 및 방문 양식

멕시코 식약청에 제출하는 신청서로 수입업자가 본인 정보와 수출업자(한국 기업)의 정보를 기입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증 정보, 법정 대리인이 될 수입업자의 정보(MRH), 수입 기기의 정보 및 제조업체, 공급업체 및 최종수신인과 같은 수입 정보를 반영한 제품 정보이다.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350085/COFEPRIS-01-015-F.pdf>

- 2) 소요 비용 지불 영수증

소요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지불 영수증의 경우 비용 2,379.15MXN, 원본과 2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https://tramiteselectronicos04.cofepris.gob.mx/e5cinco/Tramites/Tramites.aspx>

- 3) 제품 기능 안내서

멕시코에 수입되는 모든 기기들에 적용되는 서류로 멕시코 내 사용, 위생 규정 및 안정성을 준수하는 기기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다. 해당 서류는 수출업자의 동의 아래 수입업자가 작성한다.

<https://www.gob.mx/cofepris/acciones-y-programas/aviso-de-funcionamiento-de-responsable-sanitario-y-de-modificacion-o-baja>

- 4) 중고 기기 증빙 공증 서류

판매자(수출업자)와 구매자(수입업자)간 작성해야 하는 공증 서류로 해당 기기가 중고 기기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된다.

- 5) 사용 적합성 및 기능, 효력 보증서 등

해당 기기의 사용 적합성을 보증하는 서류로 안정성 및 기능, 효력 보증서로 기술 데이터 등을 반영한 공증 서류에 해당된다.

참고사항으로 X-ray 기기의 경우, 멕시코 표준규격NOM-229-SSA-2002을 준수해야 하며 멕시코 표준 규격과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진실 서약서, 식약청이 승인한 방사선 안전 전문 업체가 제조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http://www.cenetec.salud.gob.mx/descargas/equipoMedico/normas/NOM_229_SSA1_2002.pdf

현지 컨설팅 업체 인터뷰

멕시코시티무역관은 의료기기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인 Veraque사의 미겔 앙헬 토레스(Miguel Angel Torres)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기 내용을 작성하였다.

Q. 멕시코 중고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A. 중고의료기기는 위생 등록없이 제품 기능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과 같은 식약청 조건만 충족하면 수입이 상대적으로 신규 기기에 비해 수월하다. 모든 종류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높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할 점은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많은 수를 수입한다면, 식약청의 허가 거부 및 제한이 있을 수 있다.

Q. 중고 의료기기 수입 과정 실제 경험은 어떤지?

A. 수입은 위생 등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료 기기 수입에 비해 간단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실제 공유할 내용이 있으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식약청은 부품 수가 많지 않은 기기, 적은 수량에 대해 수입 허가를 쉬이 내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한 100대의 기기보다 비싸고 큰 3대의 기기에 허가를 내 줄 가능성이 더 크다.
2. 중고 의료기기 수입이 승인된 기기들의 경우, 대부분 영상의학 기기가 많다.
3. 중고 제품임을 증명하는 송장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제품이 작동한다는 공인기술자의 증명서가 몹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Q.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했지만 판매를 하고 싶다면 혹시 위생 등록이 필요한지?

A. 불필요하다. 판매 회사가 멕시코 내 정식으로 인증 받은 회사이고 식약청의 수입허가를 받았다면 판매할 수 있다.

Q. 멕시코 내 중고의료 기기의 가장 큰 시장은 어디인지?

A. 경험에 따르면 주 고객층은 멕시코시티의 대형 병원 혹은 클리닉보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의 중소형 클리닉이다. 추가로 국경지역의 클리닉과 병원도 될 수 있다. 이쪽은 국경 인근에 위치한 미국 병원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율이 높다. 멕시코 지역보다 의료기기 재구매율이 높은 점이 두드러진다.

공공 부분은 중고 기기에 대한 구입 제한이 있고 특별한 케이스로 구입할지라도 구매 비중이 낮으므로 멕시코 정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Q. 한국기업들이 멕시코로 수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A. 현지 수입업자들의 경우 본인이 최종 구매자이든 유통업체이든 멕시코에 제품이 도착하면 법적 대리인으로서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수출을 마친 한국기업은 부품 교체 및 기타 기기의 결함 및 문제 발생시 사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일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액세서리 혹은 의료 기기 둘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는지 반드시 세관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교체할 부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된 경우 식약청 허가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중고의료 기기 전시회가 있는지?

A.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 전시회는 ExpoMed로 대형 전시회는 아니지만 중고, 리퍼브 기기와 혁신 기기 분야의 업체들도 참여한다.

자료: 식약청 COFEPRIS,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 Fitch Solutions, Markets and Markets, 멕시코 중고의료기기협회(CANIFARMA Dispositivos Médicos), Mexico Health Review, Veraque Consulting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그리스 선박용 디젤 엔진 시장 동향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7% 감소 예상 -
- 그리스는 전세계 선박보유국 1위로 선박 부품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시장 개요

압축 점화 엔진(Compression Ignition Engine) 또는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이라고도 불리는 엔진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며 특히 조선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주로 디젤 엔진 부품은 규격과 작동법에 따라 크게 속도(상·중·하), 사용처(선박용, 자동차 산업, 기관차산업 등), 엔진 사이클(단동기관·복동기관·2사이클·4사이클), 실린더 배치(수평기관, 직립형 기관, V형 기관, 성형 엔진) 등으로 분류된다.

선박용 디젤 엔진



주: Diesel Propulsion Engine(좌), Auxiliary Engine(우)

자료: Marine Insight(해운업 전문잡지), Yanmar 홈페이지(2021.02.15)

다양한 디젤 엔진 중 2사이클 엔진과 4사이클 엔진이 주로 선박용(보트, 선박, 잠수함 등)으로 사용된다. 일반속도를 내는 선박의 경우 2사이클 엔진이 사용되며 보조 장치가 필요한 선박의 경우에는 추진 속도가 높은 4사이클 엔진을 사용한다. 선박용 엔진에는 다수의 부품이 포함돼 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은 크랭크축, 피스톤, 실리콘 라이너와 밀판 등이다.

시장 동향 및 유통 구조

그리스는 선박해운국으로 그리스 내 선박 부품 시장 수요는 다른 제품들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선박의 특성상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스가 아닌 수리를 위해 정박할 항구가 있는 국가로 선적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장 규모나 수입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테네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선박 부품 유통사인 Vazeos사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그리스의 선박용 디젤 엔진 시장은 지난 3년간 1%~1.5% 안팎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20년 선박용 디젤 엔진 시장 규모는 약 25억 8,600만 유로로 2019년 28억 1,400억 그리고 2018년 26억 8,200억 대비 시장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스 선박의 30% 이상이 한국조선소에서 건조된 점, 한국 조선사 및 기자재 기업들이 그리스를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선사 및 선박업계에 종사자들에게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우, 주로 그리스 기업의 주문을 받아 단순 공급하거나 에이전트 계약 체결 및 협업으로 그리스내 전시회 참여, 주요 세미나 참여 및 네트워크 리셉션 등 다양한 루트로 그리스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선박 부품은 주로 현지 선사의 기술매니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현지 선박 부품 수입상과 에이전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 외 유통채널은 물량 확보를 위주로 하는 스탁딜러(Stock Dealer)가 있고 주로 회전율이 큰 선박 부품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창고에 보관하다 수요 발생시 바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경쟁 동향

선박용 디젤 엔진 수입상 Vazeos사의 Mr. Vazeos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선박용 디젤 엔진의 주요 공급사는 독일 MAN, 핀란드 Wartsila, 그리고 일본산, 한국산 제품으로 형성돼 있다고 한다. 또한, 엔진 수입은 조선사의 Maker's List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조선사의 수주에 따라 매년 공급량도 변경된다고 한다.

선박용 엔진과 관련 부품의 종류는 다양하나 주로 브랜드 정품, OEM 제품과 애프터시장 제품으로 나뉘며 생산국, 주문수량, 품질 및 개런티 기간에 따라 가격 차이가 70%까지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Yanmar M200L 엔진 피스톤의 경우, 개당 450~700 달러, Daihatsu DK-20 디젤 엔진은 250~450 달러 안팎이다.

그리스에서 유통되는 주요 브랜드

제조사	제품브랜드	원산지
MAN DIESEL & TURBO HELLAS S.A.	MAN	독일
WARTSILA HELLAS S.A	WARTSILA	핀란드
YANMAR ENGINEERING CO., LTD	YANMAR	일본
DAIHATSU DIESEL(EUROPE) LTD	DAIHATSU	일본
HSD ENGINE GREECE	HSD	한국
AEIMA S.A	MITSUBISHI HI	일본
STX HELLAS	STX	한국

자료: KOTRA 아테네 무역관 바이어 인터뷰 내용 및 자체 조사(2021.2.15)

수입 동향

2020년 1월~11월 선박용 디젤 엔진 수입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동기 대비 약 5.7% 감소를 보였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 해상 운임 증가에 따라 수입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0년 1월~11월 기준 그리스의 선박용 디젤 엔진 수입국 1위는 일본으로 1,546만 달러이며 총 디젤 엔진 수입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선박용 디젤 엔진 수입은 2020년 1월~11월 기준 약 994만 달러로 그리스의 수입국 3위를 차지했다. 일본, 독일, 한국이 그리스 선박용 디젤 엔진 수입 시장의 총 44.2%를 차지하며 가장 큰 수입 시장 점유를 보유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대부분의 부품이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조선소 또는 수리를 진행할 항구가 있는 국가로 선택되기 때문에 아래 수입 통계는 전체 수입액이 아니다. 해당 통계는 그리스로만 직수입된 수입 통계이므로 전체 선박용 디젤 엔진 수입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참고가 필요하다.

수입 현황(HS코드 840999)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11월
	총계	89,934	101,241	85,813	100.0	100.0	100.0
1	일본	14,244	17,944	15,458	15.8	17.7	18.0
2	독일	14,157	14,063	12,411	15.7	13.9	14.5
3	한국	8,803	14,473	9,994	9.8	14.3	11.7
4	중국	6,047	8,520	8,627	6.7	8.4	10.1
5	네덜란드	6,051	5,331	6,178	6.7	5.3	7.2
6	벨기에	6,594	4,899	4,184	7.3	4.8	4.9
7	이탈리아	5,404	4,825	3,871	6.0	4.8	4.5
8	미국	3,406	2,692	3,713	3.8	2.7	4.3
9	사이프러스	2,769	3,576	3,501	3.1	3.5	4.1
10	영국	3,067	2,452	1,951	3.4	2.4	2.3

주: 2020년 1월~11월 수입액 기준 정렬

자료: Global Trade Atlas(2021. 2.8)

인증 및 세율

선박용 디젤 엔진의 경우 제조시 규격과 사양은 국제해사기구(IMO),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유럽연합 등 국제기관들이 규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 Lloyd's, DNV, Bureau Veritas 등 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 취득도 필요하다.

선박용 디젤 엔진 부품(HS Code: 840999)의 경우 한-EU FTA 체결로 인해 무관세이며 수입시 바이어에게 그리스 부가가치세율인 24%가 적용된다. 그리스의 선박용 디젤 엔진 수입국 1위인 일본 또한, 유럽-일본 경제무역협정(EPA) 발효로 인해 2019년 2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시사점

그리스는 전세계 선박량의 17.8%로 해운국 1위로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선박 부품의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그리스 선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현지 수입상, 브로커 등 거래처를 통해 구매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스 시장 진출 시 현지 선사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에 전념하기보다는 해당 선사와 거래하는 현지 유망한 수입상을 통해 선사를 타깃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박용 부품, 특히 디젤 엔진 부품과 같은 매우 중요한 부품의 경우 선사 또는 관련 해운업에 종사하는 기술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제품과 기술적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 세미나를 통해 홍보시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른 정부 조치로 인해 다모임 또는 컨퍼런스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인 웹비나를 통해 개최하거나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스 선사들과 수입상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 수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스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는 다소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격년마다 개최되는 그리스 아테네 선박기자재 전시회인 포시도니아(www.posidonia-events.com) 참관 또는 부스 참여를 통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

수입상들이 제품 구매 고려시 제품 가격과 품질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외 각 기업에서 제시하는 최소 주문수량과 물품 대금 납부 기간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스 바이어와 미팅 전 이러한 부분이 조절 가능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하기를 권유한다.

자료원: 디젤 엔진 제조사 홈페이지, 선박용 부품 수입자 담당자 인터뷰, Global Trade Atlas 수입 통계 및 아테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